

05 2028 대입 · 고 교 학 점 제

심화수학이 빠졌습니다

이공계 준비는 어떻게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빠졌나	3
03 그럼 안 해도 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빠진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 **미적분 I 은 남습니다** (과목별 대조표)
- ◆ **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 학교 개설·학생부 이수·대학 1학년 미적분학
- ◆ 진로별로 갈리는 판단 — **공대·의약·인문·아직 모르겠다** 네 경우
- ◆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 공동교육과정과 확인해야 할 것

01 · 먼저 사실부터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미적분 II와 기하가 2028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둘입니다 — 「그럼 안 해도 되나요」와 「이공계는 어떡하나요」. 둘 다 답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8부터
수능	미적분 · 기하 택1 가능	출제 안 함
학교 수업	선택 과목으로 개설	그대로 개설
학생부	이수 기록 남음	그대로 남음
대학 수업	이공계에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빠진 것은 수능 한 칸뿐입니다. 나머지 세 칸은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도에서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지목이 **없어집니다** — 수능에 그 과목이 없으니까요.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2 개정 교육과정,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지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입니다.

02 · 무엇이 빠졌나

이름을 정확히 보십시오

「수학이 빠졌다」가 아닙니다. 빠진 것은 두 과목입니다.

과목	무엇을 다루나	수능
대수	지수·로그·수열	나옵니다
미적분 I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나옵니다
확률과통계	경우의 수·확률·통계	나옵니다
미적분 II	초월함수의 미분·적분	안 나옵니다
기하	이차곡선·공간벡터	안 나옵니다

미적분 자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미적분 I 은 그대로 나옵니다. 빠진 것은 삼각함수·지수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률과통계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확통이냐 미적이냐」로 갈리던 것이, 확통 쪽으로 통일된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이렇습니다

확률과통계를 보던 학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적분을 보던 학생은 수능에서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만 없어진 것은 「수능에서 쓸 자리」이지 「배울 이유」가 아닙니다. 다음 면에서 그 까닭을 보시겠습니다.

출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육부 확정안. 과목 이름과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 기준입니다.

03 · 그림 안 해도 되나

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남아
학교 과목	선택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이수와 성적, 세특이 남습니다
대학 수업	공대 1학년 미적분학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셋째 줄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대학 이공계 1학년 미적분학은 초월함수의 미적분에서 출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가면 대학 첫 학기에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수능에 안 나오는 것과 대학에서 안 쓰는 것은 다릅니다. 이 편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둘째 줄도 가볍지 않습니다

수능이 공통이 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이공계 적성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학생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화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그 자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대학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 수능 부담은 줄었고, 배울 이유는 남았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 안 한다」는 판단이 위험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과목 개설 여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진로에 따라 갑니다

진로	심화수학을	왜
공대 · 자연대	듣는 쪽을 권합니다	대학에서 바로 씁니다
의약계열	듣는 쪽을 권합니다	이공 기초가 필요합니다
인문 · 사회	안 들어도 됩니다	쓸 자리가 적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열어 두십시오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맨 아랫줄이 실제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고1·고2에 진로가 확정된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안 들었다가 이공계로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들었다가 인문계로 가면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두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과목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빠진 것이 **미적분 II·기하** 인 것을 아는가 (미적분 I 은 남습니다)
- ☐ 학교에는 **그대로 개설** 되는 것을 아는가
- ☐ 우리 학교에 **실제로 개설** 되는가
- ☐ 진로가 **이공·의약** 쪽인가
- ☐ 아직 모르겠다면 **열어 두는 쪽** 으로 정했는가
- ☐ 「수능에 없으니 안 한다」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 ☐ 학원 과정을 **수능 기준으로만** 짜고 있지 않은가

넷째를 꼭 확인하십시오. 수능에서 빠지면 신청자가 줄고, 신청자가 적으면 학교가 개설을 접습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수능에 안 나온다」는 한 줄만 듣고 학교 심화 과목을 통째로 접는 일입니다. 수능 부담이 준 것은 사실이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대학에 가서 그 과목을 씁니다. 고등학교에서 3년에 걸쳐 배울 것을 대학 첫 학기에 몰아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만 보십시오.

05 · 자주 묻는 것

심화수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이공계 준비가 쉬워진 건가요?

수능 준비는 가벼워졌고, 대학 준비는 그대로입니다.

수능에서 두 과목이 빠졌으니 시험 범위는 줄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 공대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학년 미적분학·일반물리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안다고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쉬워졌다」 기보다 「부담이 수능에서 학교로 옮겨갔다」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들으면 오히려 전보다 낫습니다 — 수능 문제 풀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Q.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개설은 수요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학생이 모이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공동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과목으로, 다른 학교에서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운영이 다르니 학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온라인 학교나 방과후가 남습니다. 다만 학생부 이수 기록으로 남는지는 경로마다 다릅니다. 기록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 학점으로 안 남아도 내용은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능에서 빠진 것은 미적분 II·기하 두 과목이고, 학교·학생부·대학 수업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